

<書評>

John Fayerweather 著
International Business Management

—A Conceptual Framework—

(McGraw-Hill, New York, 1969, pp.220)

韓 義 泳

1.

本書는 「概念的프레임·워크」라는 副題가 가리키듯 열쇳 純理論의著作인 것처럼 错覺되기 쉬우나 實際로는 實務家에게도 理解되기 쉬울 정도로 明快하게 說明되어진 國際經營에 관한 力作이다. 특히 國際經營의 理論의 「프레임·워크」를 明確히 하면서도 豐富한 各種 事例를 混合시켜 說明해 나가는 手法을 바탕으로한 近來에 드문 勞作이다.

元來 本書는 McGraw-Hill社의 全6卷으로 形成되는 國際經營시리이즈의 第一卷을 裝飾하는 著作으로써 本시리이즈의 編輯責任者인 F. R. Root의 말마따나『— 教育者, 學生, 그리고 企業의 最高經營者에 대해서 國際企業의 經營, 또한 그것을 둘러싼 多國籍의in 環境의 基本的인 問題點에 관해서 簡潔하고 權威있는 研究成果를 整理한 形態로 提供하기 위한 것 (編輯者の 序文에서)』에 그 目的이 두어진대로 매우 簡潔·明瞭하고 豐富한 事例를 驅使한 權威있는 研究成果의 集大成이라 할 수 있다. 本書에 이어 繽刊되어질 第2卷 以下 第6卷까지의 各卷은 現在 契筆段階에 있으나 서로 補完되어지도록 企劃되고 있으며, 本시리이즈의 全卷으로 國際經營에 관한 모든 研究領域이 카버되도록 되어있다.

이렇듯 史上 最初의 國際經營學에 관한 著作시리이즈의 第1卷이 하필 J. Fayerweather教授에 依해서 契筆되었다는 것은 그 만큼 國際經營學分野에 있어서의 이제까지의 教授의 役割과 貢獻이 多大하였다는 事實과, 또 앞으로도 斯界의 第一人者로 계속 남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事實의 端的인 表現이나 다름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F.R. Root가 새삼 그 序文에서 다음과 같이 強調하고 있는 것처럼 本書야 말로 自他가 共認해야 할 가장 權威있으

筆者：서울大學校 經營大學 經營研究所 研究員, 서울大學教 經營大學 教授。

며 魅力이 있는 國際經營學의 劳作임엔 틀림없다.

『——多國籍企業의 出現에 依해서 國際經營에 關한 研究는 各方面에서 爆發的인 進展을 보이고 있지만, 오늘날처럼 複雜하고 急變하는 國際環境의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文化的側面과의 相關關係에 있어서 國際經營의 最高經營者 및 國際經營의 機能에 關한 모든 領域 할 수 있다. —

教授는 특히 資源의 國際的移植者로써, 또는 變革의 媒介者로써 多國籍企業이 다하는 役割에 焦點을 두어서 受入國과 國際企業과의 補完關係 및 對立關係에 論究하고 있다. 그리고 그 分析에서 國際企業의 世界經營戰略, 組織 및 管理에 關한 論點을 導出하고 있다. 이 모든 作業은 國際企業의 幅闊은 活動에 實際活動上 및 規範的인 意義를 지니는 分析手法에 有用한 「概念的프레임·워크」가운데서 遂行되고 있다. 따라서 國際經營學關係의 著書 가운데서 本書처럼 魅力있는 著作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안다. —』

2.

本書는 全6章으로 構成되어진 總 220페이지의 著書로써 그 出版年度는 1969年이다. 本書의 特色으로는 各章의 末尾마다 자세한 要約(Summary)이 添加되어 있어 다급한 경우에는 要約만의 精讀만으로도 本書全體의 通讀과 같은 效果가 期待될 수 있도록 細心한 注意가 接配되고 있다. 이제 그 主된 内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第1章 序論(Introduction and Overview)

第2章 資源의 國際移動(International Transmission of Resources)

第3章 受入國社會와의 關係(Relation with Host Societies)

第4章 내소날리즘 및 내소날·인터레스트와의 갈등(Conflicts with Nationalism and National Interests)

第5章 世界的인 經營戰略(The Global Business Strategy)

第6章 組織과 管理(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第1章(序論)에서는 主로 國際經營에 關한 諸文獻의 紹介와 分析서 부터 시작하여 本書의

副題가 가리키듯 國際經營에 있어서의 이른바 「概念的프레임·워크」의 提示와 說明에 焦點이 두어지고 있다. 그와 아울러 著者가 『本書의 内容을 完全히 理解하기 위해서는 必須不可缺』하다고 指稱하는 參考文獻들이 章末을 裝飾하고 있다. 그 가운데에는 C.P. Kindleberger의 國際經濟學(International Economics)도 들어 있어 參考文獻의 幅闊은 引用을 짐작케 한다.

第2章(資源의 國際移動)에서는 多國籍企業이 다하게 되는 役割의 本質로써의 「資源의 國際移動에 관해 論究되어 진다. 즉 Fayerweather 教授는 『多國籍企業의 理解에 必要한 概念의 프레임·워크』를 明白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多國籍企業이 各國間의 經濟關係에 있어서 다하게 되는 役割부터 檢討해야 한다』고 力說하고, 그러한 役割은 바로 『資源의 偏在에 隨伴되는 需給關係에 依해서 생기는 機會에 따라서 國際企業이 各國間에 資源을 移動시키는 점에 있다』고 啓破한다. 따라서 第2章에서는 그 後續節로써 基本的인 經濟關係, 政府의 影響, 企業의 特質, 企業戰略의 展開, 資源의 種類, 該當對象國의 選擇, 資源移動의 方法등이 展開되어진다.

第3章(受入國社會와의 關係)은 이러한 資源의 國際移動이라는 것은 多國籍企業과 外國社會와의 相關關係를 그 核心으로 두고 있는 問題이기 때문에 受入國社會와의 關係를 細密하게 分析·描寫하는데에 論究의 焦點이 두어지고 있다. 第3章의 各內容節로써는 비지니스와 社會, 社會에 있어서의 相互關係의 差異, 變化의 過程, 多國籍企業의 役割등이 그 標題로써 浮刻되어지고 있다. 특히 多國籍企業의 役割을 再次 強調하는 意味로서 『——受入國側社會에서 外國企業으로서의 多國籍企業이 모두 하게 되는 보다 特別한 役割은 技術革新을 導入하는 일이며 그것은 資源을 移動시키는 機能의 一部, 또는 相互文化交流에 依해서 變化를 일으키는 媒體로서의 活動의 一部라고도 생각되어진다. —』고 한 것은 지당한 持論이라 말할 수 있다.

그런데 第4章에서는 前章의 「受入國社會와의 關係」를 分析·描寫하는 潶中에서는 반드시 대두되며 마련인 내셔널리즘의 問題를 取扱해서 거의 70餘페이지의 많은 分量을 割愛할 만큼 자세하고 치밀한 論究를 폈고 있다. 章名인 「내셔널리즘 및 내셔널·인터레스트와의 갈등」이 가리키는 대로 多國籍企業과 受入國과의 兩國間의 利害의 衝突에 대해 자세한 分析이 엿달고 있는 점이 이 章의 壓卷이라 할 수 있다. Fayerweather는 多國籍企業이 안고 있는 問題는 두가지 面에서 發生한다고 보고 그 하나는 兩國間의 利害의 衝突이며, 또 하나는 企業의 思考方式과 國家利益의 全體的守護者로서의 政府의 思考方式의 差異라고 說明한다. 그 한例로서는 美國의 多國籍企業과 美國政府의 思考方式의 差異에 言及하고 있어

적어도 美國을 為主로 한 國際經營의 事例的研究와 그 理解에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 第4章의 內容으로서는 내쇼날리즘(nationalism), 내셔널·인터레스트(national interests), 多國籍企業의 政策, 順應的 어프로우치(the accommodation approach), 파워·밸런스·어프로우치(the power-balance approach), 보다 廣大한 展望(a broader perspective)등의 各節이 包含되어진다.

第5章(世界的인 經營戰略)에서는 總括的인 觀點에서 2國間베이스가 아닌 多國間의 多國籍企業戰略에 관한 論究가 펼쳐진다. 그렇지 않아도 第4章까지는 多國籍企業문제에 관한 檢討와 分析이 주로 2國間베이스, 즉 進出企業의 本國과 그 受入國과의 關係에서만 取扱되어 왔으나, 원래 多國籍企業이란 不特定多數國과의 關係가 普偏的인 추세로 되어있어 그 「概念的 프레임·워크」를 明白히 하기 위한 意味에서도 多國間의 國際經營戰略에 관한 論究가 전혀 없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世界的인 經營戰略」(the global business strategy)으로서 주로 이론바 國際經營戰略의 分散化(fragmentation)對 統一化(unification) 理論에 만 그 議論의 核心을 두었다는 점이 아쉬운 對象일 수 밖에는 없다. 一例로 그 內容節로써 包括된 各章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統一化對 分散化(unification versus fragmentation), 製品政策(product policy), 物的流通計劃(logistic plans), 研究開發프로젝트의 分擔(distribution of R & D work), 財務運用體制(financial flow systems), 營業方法(operating methods)所有의 問題(ownership), 多國籍企業의 構造(the structure of the multinational corporation).

끝으로 마지막 章으로서의 第6章은 「組織과 管理」(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라는 이름의 章名으로써 多國籍企業의 組織과 管理에 관한 대목이 結論的으로 論究되어지고 있다. Fayerweather 教授는 多國籍企業의 概念的分析에 있어서는 企業의 組織과 管理는 두 가지 面에서 考察되어야 한다고 보고 그 하나는 戰略的「프레임·워크」의 面이며, 또 하나는 戰略上의 目標 및 政策을 遂行하기 위한 手段의 提供面이라고 強調한다. 따라서 第5章까지는 주로 戰略的「프레임·워크」面이 檢討되어 왔으나 第6章에서는 戰略的手段의 提供面이 檢討되어야 비로소 多國籍企業의 國際經營戰略의 全貌가 結論的으로 浮刻되어질 수 있다고 論破한다. 사실 第6章은 本書의 總括的意味에서의 結論으로 該當되는 뉴앙스가 풍겨지는 대목으로써 Fayerweather教授 역시 「概念的프레임·워크」는 이리하여 組織 및 管理計劃의 形成, 특히 이러한 計劃의 實際適用面에 있어서의 漸次的發展에 대해서 全般的인 目標와思考方式을 提供하게 된다고 強調하면서 本書를 끝맺고 있다. 第6章의 內容節로서는 目標(objective), 意思疎通의 갭(communication gaps), 組織과 管理計劃(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lan), 世界的인 組織 및 管理시스템(world-wide organization and admini-

strative system), 海外子會社의 經營管理(management within foreign units), 經營管理者層 (managerial personnel) 등이다.

参考로 現在 New York 大學의 教授인 J. Fayerweather에 依해 이제까지 著述된 主著와 本시리이즈로 繢刊되어질 5卷의 名單을 紹介하면 다음과 같다.

J. Fayerweather 教授의 主著

1. The Executive Overseas: Administrative Attitudes and Relationship in a Foreign culture, Syracuse U.P., 1959.
2. Management of International Operations; Text and Cases, McGraw-Hill, 1960.
3. Facts and Fallacies of International Business, Holt, 1962.
4. International Marketing, Prentice-Hall Inc., 1965.
5. International Business-Government Affairs: Toward an Era of Accommodation, Ballinger Pub., 1973.
6. Foreign Investment in Canada: Prospect for National Policy, International Arts and Sciences Pr., 1973.

國際經營學시리이즈의 繢刊豫定分

1. The Economics of International Business
2. Government and International Business
3. International Marketing Management
4. Inter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5. International Business Policy